

(선천성 치아 결손을 동반한 부정교합의 치료)-①

치배가 선천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경우로써,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다. 하악 제 2 소구치, 상악측절치, 상악 제 2 소구치의 순서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교정학적인 면에서 보면, 악골의 기저골(basal bone)에는 영향이 없지만, 치아가 없으므로 치조골의 성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. 즉 치조골의 전후방, 수직적, transverse한 dimension의 감소와 rest position에서 interocclusal clearance의 증가 및 상하악 교합의 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.

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주소(chief complain)는 전치부의 spacing이 주가 된다.

이들의 치료는 환자의 연령 bite depth, 치아의 형태와 크기, 상하악 견치의 관계, 악골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가능한 치료 방법은,

- 1) 유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
- 2) 보철 치료로 결손 치아를

회복시키는 방법

3) 유치를 발치하고, 인접 미봉출 영구치가 결손된 부위로 di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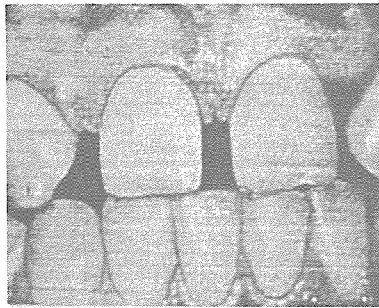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상악 양 측절치와 선천적 결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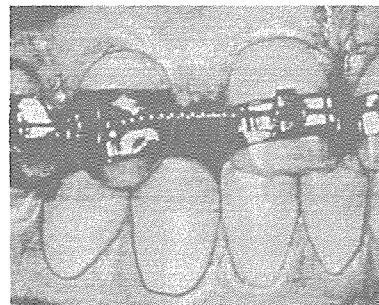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open-coil spring으로 측절치의 space를 얻는다

drift되게 하는 방법

4) 유치를 발치한 즉시 교정 치료를 하는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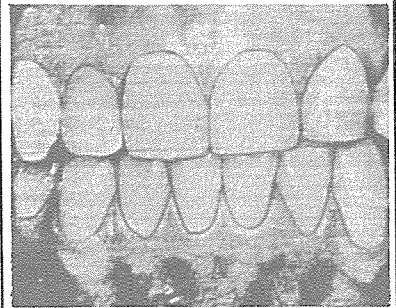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보철치료후



그림 4. 견치를 근심이동한 교정 치료 후

CHOI'S DENTAL LAB

崔鍾煥 치과기공소

서울·종로구 송인동 1081
923-6671 · 923-2998